

# 성시신문 Magazine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 245

Spring 2022

## 인물인터뷰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

## 기획연재

1세기 전, 춘천지역을 말한 무스 선교사  
절묘한 역전승으로 본 부활의 소망  
2022년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야기 1

## 문화에 빠지다

맛 기행 잘되는 식당, 안되는 식당  
영화이야기 갓 블레스 더 브로큰 로드  
영화감상 김복동  
문학 시(詩)  
책속의 책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건강 잣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눅4:18-19)



창간199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on/off line  
 YouTube holy1972

## 청춘예찬

청년은천예수찬양모임  
**CHEONGCHUNYECHAN**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2022년 03월 - 05월**

3월 장소 : 순복음중천교회(3층 비전홀)  
 4월 장소 : 춘천 CCC 회관  
 5월 장소 : 드림성령교회(1-2주), 주향교회(3-4주)

주관: 춘천성서회운동본부 / [www.holy1972.com](http://www.holy1972.com)

춘천성서회운동 50주년  
**청년연합집회**  
 YouTube holy1972

2022년 3월-05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00분-9시  
 3월 장소 : 순복음중천교회(3층 비전홀)

### 청년연합집회 청춘예찬

**3월**

주말	평일	기도
1주일 (토)	김민준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김영호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14주일 (토)	김민준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김영호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21주일 (토)	김민준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김영호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28주일 (토)	김민준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김영호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cheongchun-yechan

2022년 3월-05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00분-9시  
 4월 장소 : 춘천 CCC 회관

### 청년연합집회 청춘예찬

**4월**

주말	평일	기도
4주일 (토)	김민준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김영호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11주일 (토)	김민준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김영호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18주일 (토)	김민준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김영호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25주일 (토)	김민준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김영호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cheongchun-yechan

2022년 3월-05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00분-9시  
 5월 장소 : 드림성령교회(1-2주), 주향교회(3-4주)

### 청년연합집회 청춘예찬

**5월**

주말	평일	기도
3주일 (토)	김민준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김영호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10주일 (토)	김민준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김영호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17주일 (토)	김민준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김영호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24주일 (토)	김민준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김영호 목사 (순복음중천교회)

cheongchun-yechan

춘천성서회운동 50주년

on/off line  
 YouTube holy1972

## CHEONGCHUN YECHAN

### 청춘예찬 연합대집회

일시 : 2022 05 29 (주일 pm7:30)  
 장소 : 석사감리교회

주관: 춘천성서회운동본부 / [www.holy1972.com](http://www.holy1972.com)  
 문의: 010-9588-2993

강사 : 김관성 목사 (영신침례교회 담임)

찬양 : 춘천청년연합팀

# Contents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 인물인터뷰 | 성시화

**05**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 | 김창환 목사

## 기획연재

**08** 1세기 전, 춘천지역을 말한 무스 선교사 | 김동정 장로

**10** 절기이야기 | 절묘한 역전승으로 본 부활의 소망 박진형 목사

**12** 그리스도인 이야기 | 2022년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야기 1  
조용호 박사

## 문화 | 영화 | 책 FOOD MOVIE BOOK

**15** 맛 기행(예수의 미소 시즌②) | 잘되는 식당, 안되는 식당 이관형 권사

**17** 영화이야기 | 갓 블레스 더 브로큰 로드 God Bless the Broken Road  
김춘배 화백

**18** 영화감상 | 김복동

**19** 문학 | 시(詩) 동행 김용배 장로

**20** 책속의 책 | 정숙현 전도사

**21** 건강 | 잣 이시형 원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

춘천성시화운동본부 QR코드 후원참여에 들어가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참여

# 성시화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 이 도시가 통째로 거듭나야 한다.

김창환 목사

(춘천온누리교회 담임,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증경이사장)

올해는 춘천성시화운동이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1972년 여름, 춘천의 교회들(위원장/김연호 목사, 춘천중앙감리교회)과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총재 김준곤 목사) 등 우수한 기독교단체들의 총연합으로 시작된 춘천성시화운동이 올해로 의미 있는 희년을 맞았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춘천 성시화운동을 이끌어 오고 헌신한 본 회 증경 이사장 김창환 목사(온누리교회 담임)를 만나 그 소감을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의미 있는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춘천 성시화운동과의 만남,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인 1980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24살의 총각으로 후평제일교회(현 후평동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화천교회의 파송을 받아 청소년 사역을 주로 힘쓸 때인데, "I find it!"(당시 성시화운동의 슬로건: 편집자 주)라는 배지를 달고 다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무엇을 찾았나요?"라고 질문을 하니, 성시화운동과 사역에 관해 알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성시화운동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후 1990년 5월에 지금의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본격적으로 미력하나마 교계 연합운동에 참여하면서 교과, 교단을 초월한 훌륭한 목사님들을 뵈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대선배님들임에도 겸손히 춘천성시화와 기독교 연합회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고, 폭넓은 교계와 사역을 하도록 많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은퇴하시고, 고인도 되셨지만, 임신영 목사님(춘천동부장로교회, 원로), 김창수 목사님(신성감리교회, 원로), 고 김주환 목사님(순복음춘천교회), 박상호 목사님(춘천제일장로교회, 원로), 권오서 목사님(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유동선 목사님(춘천중앙성결교회 원로), 김광국 목사님(성광장로교회, 원로), 고 이원호 목사님(소양성결교회), 원종국 목사님(제일감리교회, 원로)을 통해 관계의 중요성과 목회자의 인격, 사역, 춘천성시화의 꿈을 배웠습니다.

장로님 중에는 홀리클럽과 장로연합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던 고 이학규장로님(석사감리교회)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춘천 교계 연합운동의 총무를 맡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고, 좋은 장로님들을 소개해 주어서 성시화와 연합운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설교와 강의, 전도, 양육과 제자훈련으로 교회사역이 한창 많을 때인데, 이 장로님의 도움과 여타 장로님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다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직을 수행하던 중, 위급한 수술로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때,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신 박인관 목사님(광업교회, 직전 이사장)께서 사역을 이어주셨고, 다시 지금의 이수형 목사님(순복음춘천교회, 현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맡아 더욱 진일보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이 상근 사무총장직에 김훈 목사님을 청빙하여 여러 분야의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재호 목사님(늘사랑교회, 성시 사무총장역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섬기시려, 또 무보수 사무총장으로 7년을 재직하며 헌신적인 수고를 하였는데도 제대로 된 활동비도 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마음에 걸립니다. 또한, 성시신문 편집위원들이나 성시운동의 중요한 보직을

맡아 섬기신 분들에게 적은 활동비마저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성시운동이야말로 교회들이 먼저 연합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춘천의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된 호반체육관 연합집회, 거리 전도, 상가에도 임대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한 일, 사순절 십자가 대행진과 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수거, 역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등입니다. 그동안 성시운동으로 부름을 받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 서로 배우며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내가 연약할 때 그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시 운동은 남을 위한 것인 것 같으나 곧 나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앞으로 춘천 성시화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성시화란 한마디로 이 도시 춘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화목과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리 차지나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며, 종교적 업적으로 개인과 교단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성시화의 필요성을 인식, 의식하며 지교회 목회를 통하여 성시화 사역을 해야 합니다. 모든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목사인 나 자신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여 성시화 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본을 보이며 앞서가야 성도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성시화 운동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사역보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 정직, 도덕, 윤리, 질서, 화목, 사랑, 친절, 따뜻한 언어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 속에 거주하는 외인으로 구별된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일상을 함께하면서도 십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구별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욕을 먹어도 축복하고,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부족하지만 넉넉하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소금과 빛의 삶의 질을 보고 주목을 받을 때 이것이 성시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독교연합회든지 성시화 운동본부이든지 임원의 임기를 마친 후에는 증경 임원들이 오히려 더 열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 이 운동의 활기가 더해질 것입니다.

올해 성시화 50주년 희년 대성회(again 1972)를 8.15 전후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는 기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성회는 연합집회이기에 무엇보다 지교회 목사님들의 의식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시화와 연합집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지니고 실천하며 참석해야 합니다. 400개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과 장로님들만 참석해도 2,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교회가 작으나 크나, 누가 임원 자리를 차지하느냐로 시기, 질투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성시운동이 무엇을 했느냐고 하는 논쟁, 비판, 무관심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시운동이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과 혜택을 주었느냐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으면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참석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배우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함께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또 모든 교회가 성시화운동 후원비를 책정하여 적은 액수라도 매달 후원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임원들과 이사들의 부담만 가중하며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며,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책임 유기일지도 모릅니다.

천원의 금액이라도 매달 후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당할 은혜의 힘을 부어 주십니다. 또 하나 됨을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부터 하나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모일 수 있을 때 모였으면 합니다. 함께 할 사역은 함께 후원하고 참여합니다.

춘천 성시화 50주년에 나이만 먹고, 춘천이 세계 성시화운동의 출발지라고 걸만 자랑하고 년수만 뽐낼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머뭇거리며 재지 말고, 성시화를 위해 지금 참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소통과 배려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전하면 춘천 성시화는 반드시 앞당겨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 최상도 목사(사암교회, 성시신문)



## 1세기 전, 춘천지역을 말한 무스 선교사

김동정 장로

(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 역사교육과 교수)

- 춘천지역을 가슴에 품은 무스 부부
- 외국인들이 말한 “조선 사람은 매우 게으르다”를 반박한 무스 선교사
- 무스 선교사가 본 무속 신앙과 유교적 사고
- 100년 전에도 강원도 사람을 ‘감자 바우’라고 불렀다는 무스 선교사



무스 선교사

### 춘천지역을 가슴에 품은 무스 부부

미 남감리회 선교사로 파송된 무스 목사



무스 선교사(Jacob Robert Moose, 한국명 무야곰, 1864~1928)는 외국인 최초로 강원도에서 거주하며, 춘천중앙감리교회 부흥에 기여했고 원주제일감리교회를 설립하는 등 25년간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특히 춘천 등 강원도 북부 지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이다.

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State of North Carolina)의 농촌에서 태어나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거쳐 1892년 트리니티대학(Trinity College) 신학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1893년 메리매그놀

리아 더함(Mary Magnolia Durham, 1867~1956)과 결혼하고 선교를 준비하였다.

1899년 남감리회 선교사로 파송 받아 한국에 왔다. 한국 도착 후 서울광화문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그는 양주 등 강원도 북부지방으로 순회 전도하여 1900년 양주 신산감리교회를 설립하였다. 1899년 남감리회가 창설될 때 감리사로 시무하였고, 그 후 연회 회장도 두 차례 역임하였다.

### 북한강[춘천] 구역을 맡은 무스 목사

1900년 남감리회는 원산구역과 북한강 구역(춘천 등)으로 나누면서, 무스에게 북한강 구역을 맡게 하였다. 그래서 1901년부터 춘천에 구역회를 조직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였다. 이때 남양주 월산교회 등을 방문하고 설교하였다. 1905년에는 원주를 방문하여 원주에서 최초 교회인 원주읍교회(현 원주제일교회)를 설립하였다.

한편, 1904년 9월 제8차 선교연회에서 춘천은 독립구역이 되었고 1907년 9월에 춘천 선교부가 개설되자 봉의산 일대에 3만5천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선교사 거주 주택을 건축했다. 이때 무스는 1908년 9월 춘천으로 이사하여, 강원도에 거주하는 최초 외국인 선교사가 되었다. 이때 조사 이덕수도 함께 춘천으로 와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그 후 양구, 홍천 등 강원도 북부지방으로 복음이 확산하였다.

이덕수(1873~1909)는 임진강변 고랑포(高浪浦) 태생으로 원래 술과 노름으로 살던 못된 사람

이었으나, 회심 후 복음 전하는 조사가 되었다. 그 후 1902년 무스 선교사의 요청으로 함께 춘천으로 이사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으나, 아쉽게도 춘천 온 지 8년 만인 1910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춘천 신동면 교회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무스는 1917년 병으로 일시 귀국했다가 1921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철원에서 1924년까지 사역하였다. 그러나 1924년 지병이 악화하여 귀국하였다. 4년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Greensboro)에서 거주하다가 1928년 8월 소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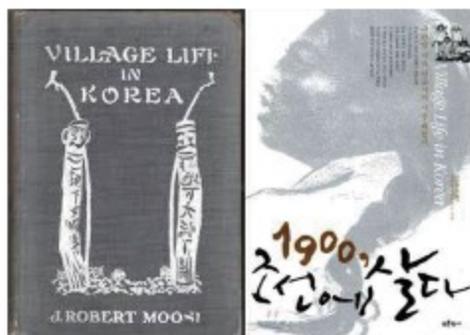
부인 메리 매그놀리아 더함은 그린스보로여대를 졸업하고 선교사 꿈을 가졌는데 남편을 만나 그녀의 꿈을 펼쳤다. 그녀는 1909년 9월 춘천에 기독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먼저 남학교를 아동리 언덕에 설립하였는데, 한영지서원(韓英支書院)으로 발전하였고 여학교도 같은 아동리에 한옥 교사를 마련하여 처음에는 '매일학교'로 시작하였으나 멀리 지방에서 자녀를 데리고 온 교인들이 있어 기숙 형태로 운영하였는데, 정명여학교(貞明女學校)가 되었다.

### 무스가 남긴 「1900년, 조선에 살다」(원제 「Village Life in Korea」)

무스가 1911년에 남긴 「Village Life in Korea」는 무스 선교사의 외증손자인 제프리 폴 제이콥스의 지원으로 「1900년, 조선에 살다」(문무홍 외 옮김, 푸른역사, 2008)로 번역·출간되었다. 외증손자 제프리 폴 제이콥스(Jeffery Paul Jacobs)는 1982년 오하이오주 하원의원을 지냈고 미국의 투자 전문그룹인 제이콥스사의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미국 내에서 10대 재벌의 하나로 성공한 기업가이다. 그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서 조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었는데, 2005년 어머니 헬렌에게서 그동안 소중히 보관해 온 책 한 권을 받았다고 한다. 그 책이 「Village Life in Korea」로 현재 이 책은 미 전역에서 미 국회도서관에 한 권만 확인된 희귀본이었다. “책을 묻혀두기가 아까워 한국인에게 연락해 번역 출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무스가 책을 저술한 것은 1909년 8월이다. 그는 책의 서두에서 “조선에 대해 세상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매우 많으며 자신이 매우 사랑하게 된 조선인들에 대해 독자들이 더욱 명확한 지식과 더 깊은 애정을 갖게 되는 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책을 기술한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에 1세기 전 당시, 무스 선교사가 본 춘천 주변의 모습과 생활상은 어떠했는지 이후 3차례에 걸쳐 살펴보기로 한다.



원본인 「Village Life in Korea」와 번역본인 「1900, 조선에 살다」 표지



전기작가며 전 미국 드루대 감리교문서보관소 연구원인 임연철 박사가 공개한 무스 선교사 관련 기록사진 (네이트 뉴스 2020.12.23.)

## 절묘한 역전승으로 본 부활의 소망

박진형 목사(춘천신성감리교회)

다윗이 마주한 거인 골리앗, 예수님이 마주한 거인 사망 권세는 서로 참 많이 닮아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에서 다윗이 거인을 이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 현실에서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앞에서 있는 거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인은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치듯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너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너에게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다윗 앞에 나타난 거인 골리앗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크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십일을 새벽과 저녁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사십일을 새벽과 저녁으로 골리앗과 마주하고,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시선도 자신들의 생각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늘 그렇듯 악한 자가 우리 앞에 즐겨 사용하고 즐겨찾기 하는 방식들입니다. 결국엔 일어나면 두려운 생각이 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염려로 사로잡힙니다. 온종일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염려로 하루를 다 보내고 맙니다. 주님은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아끼기는커녕 온통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세월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낭비하고 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사망이라는 이름의 거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드렸으니 부활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려 간 여인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향유를 부으려 간 것 아닐까요? 불안과 실망과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그들을 지배할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인들이 하는 공통분모를 발견합니다. 아침저녁으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들고 놀리고 조롱하고 소망을 앗아가며 온통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부활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들은 때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세 여인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다고 마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막 16:8]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그렇게도 사랑했던 여인들이건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왜 그렇게 놀란 것일까요? 상식으로는 그 부활의 소식에 떨 듯이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지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지막이 말해줍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향해 “아니다, 절망이다, 끝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맞다, 희망이다, 시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 부활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절묘한 역전승의 내용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사 55:8)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절묘한 역전승의 이유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생명 나라의 주춧돌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절묘한 역전승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절묘한 역전승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뜨겁게 이야기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 2022년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야기 1

조용호 박사(전 법제처부이사관)

성경은 역사서는 물론 묵시서, 복음서도 대부분 연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삼 년”(다니엘), “유대 왕 헤롯의 때에”(누가복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대를 말하고, 그 시대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한다. 성경은 시대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지는 않는다.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알려준다.

2022년 2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금 시대를 “대변혁”, “대전환”으로 부른다. 코로나가 모든 것을 덮어 버린 듯 보이지만 사실 감염병은 일시적인 팬데믹일뿐이

다. 팬데믹에 가리운 듯 보이지만 저변에는 더 크고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어쩌면 코로나는 지난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잠잠히 앞날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른다.

변화의 물결은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에서 밀려온다. 그 물결 앞에서 사람들은 다투고 갈등한다. 첫 번째 변화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4차산업혁명에서 시작된다. 정부도 이 변화를 알 수 없기에 촉촉한 밭망에서 벗어나 마음껏 재능을 발휘하라고 “규제샌드박스”라는 지극히 예외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벤져스를 모아 돌파해보자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인류의 지식을 모아 빅데이터를 만들고 이 빅데이터로 움직이는 세상을 그려나간다. 자동차를 움직이고(자율차) 공장을 가동하고(로봇) 일상생활을 관리하며(인공지능), 도시를 관리하고(스마트시티) 학교나 사무실이 온라인공간(메타버스)으로 바꾸어 나간다. 상품 주문에서 의료까지 앞으로 나의 삶은 내가 아는 나보다 더 잘 관리된 데이터가 해나갈지도 모른다.

이런 중에 오랫동안 잠재되어왔던 기후 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탄소라는 지극히 작은 물질을 놓고 세계가 연일 위기의 인류를 말한다. 기업은 신기술을 소개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삼키는 상상을 한다. 기후 위기 앞에서 ‘데이터’는 지식일 뿐 해법이 아님을 새삼 깨닫는다. 기후 위기는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연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이 변화를 더욱 어지럽게 한다. 4차산업혁명과 기후 위기를 맞이하여 함께 지혜를 모아 공동대응하여야 할 국제사회는 오히려 패권 다툼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절대강자의 지위가 흔들리고 지구촌에는 전쟁의 소문이 퍼져간다. 이런 세계 속에 한반도가 있다. 춘천시민은 이런 한반도에서도 분단된 강원도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리라. 빅데이터에 수동적으로 관리당하는 것이 삶이 아니다. 나를 둘러싼 데이터를 복음화하는 것, 기후 위기가 다가올 때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 세계의 패권 경쟁을 보며 인류의 무지함을 알고 겸손히 주의 뜻을 실천하는 것,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을 연결하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해 본다.

어디에서 시작할까. 2022년 2월에 성경이 쓰인다면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해 본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을까. “226개의 시군으로 나뉘어 지상낙원 만들겠다고 공약하던 대한민국, 4,300여 개의 법령과 2만여 개의 지침이 다스리던 나라, 그곳에 680만 개의 기업, 113만여 명의 공직자, 20,740개의 학교와 2,400여 개의 병원이 있었더라. 이때 사업가 000가 상품개발을 하는데… 공직자 000가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며 법령을 뒤적이던 중… 의료인 000가 환자를 돌보는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대변혁의 시대에 시대를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주목할 것이다. 대변혁이 다가오는데 단단히 마음먹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 가는 사람들. 성경의 역사가, 복음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여 가족으로 부족으로 나라로 세계로 확산하여 가듯 영역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대변혁의 주인공이리라.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춘천 생활이 즐겁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요

봄

가

야



## 잘되는 식당, 안되는 식당

이관형 권사(춘천 한길교회)

맛 기행 형식의 글을 10년 가까이 쓰다 보니 이제 음식점 건물만 봐도 어떤 메뉴의 음식을 파는지 거의 맞힐 수가 있고 심지어 개업한 음식점의 수명과 폐업 이후 어떤 메뉴의 음식점이 또 들어서는지도 대충 감이 잡힌다.

아주 가끔 음식점 창업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나를 찾아와 창업에 대해 문의를 하면 나는 먼저 아래와 같은 질문 3가지 중 두 가지가 포함된다면 음식점 창업을 포기하라고 권한다. (단, 프랜차이즈 점은 제외다)

첫째, 음식점 외에 딱히 창업할 장사가 없다.

둘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창업하고 싶다.

셋째, 주방(조리)은 내가 잘 아는 지인이나 일가친척 중에 한 사람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 같은 내 질문에 대부분 음식점 창업을 포기하지만, 그래도 굳이 음식점 창업을 한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지만, 심히 많은 걱정이 되고 실제로 창업 후 2년을 넘기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다.

가끔 길거리를 오다가다 음식점 사장님을 만나면 인사말로 요즘 영업이 어떠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된다고는 말하지만, 내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다지 장사가 잘 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맛집들은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성업 중인 데가 많다. 여기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전에도 장사가 안되는 음식점의 공통점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선 더러운 맛집은 없듯이 음식점 안팎이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다. 예를 들어 음식점 출입구에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화초들이 줄지어 손님을 맞이하고 있거나 벽에 걸린 메뉴판도 가격 변동으로 인해 덕지덕지 어지럽고 화장실 또한 청결 상태도 나쁘다. 거기다가 음식점에서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조미료(미원 아님)인 사장님과 종업원의 친절함 미소가 외출 중이면 최악이다. (육쟁이 할머니 같은 음식점 이야기는 이전 전설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개척교회건 대형교회건 간에 하나님의 성전인 만큼 시설이 깨끗하지 못하면 기존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새 신도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다. 깨끗한 교회의 환경이란 큰돈을 들여서 사치스럽게 인테리어를 말끔하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해있는 환경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눈에 보이는 구석구석이 말끔히 청소가 잘되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봄이 다가왔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음식점을 창업해서 돈을 벌려고 작심하고 있지만, 춘천이란 도시는 타 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이 입맛도 까다롭고 가성비도 잘 따진다. 그러기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다지 마땅히 할 장사가 없어서, 또 내가 그 음식을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주방(조리)을 맡기려면 아예 창업하지 말고 그냥 큰돈이 들더라도 신생 프랜차이즈 점이 아닌 유명 프랜차이즈 점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음식 맛도 좋고 값도 적당하고 종업원들의 친절한 미소가 있다면 음식값 계산 시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절로 나온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주일에 차려주신 설교라는 밥상이 맛있으면 목사님께 '은혜받았습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며 한 주간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으며 행복해질 것이다.



###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목사님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달리는데 교통경찰이 세워보니  
목사님들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려고  
'아실만 한 분들이.... 천천히 다니십시오.  
사고 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목사님이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경찰은  
'그럼 스티커를 붙겠습니다.  
3명이 타는 것은 위법입니다.'  
라고 말했다.

### 아담 국적

아담은 한국민족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아담이 어느 민족이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글썄요.

잘 모르지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보아 한국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요?

·  
·  
·  
·  
·  
한국 사람 같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뱀을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하하하~ 웃으세요~

## 갓 블레스 더 브로큰 로드

God Bless the Broken Road

김춘배 화백(성시신문 편집위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커다란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게 될까... 신실한 성도가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절망에 처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 어찌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더욱 큰 것이어서 그러할 때 더 위대한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일 때 믿음이 어떻게 단련되고 정금 같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축복하신다.”라는 뜻의 <God Bless the Broken Road>

오랫동안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며 믿음을 키우던 여인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남편이 전사하게 되어 어린 딸을 혼자서 어렵게 키우게 되는데, 바로 그 젊은 미혼모 엠버 힐(린지 펄시퍼 분)의 좌절과 그로 인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신앙심이 깊었던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나서 아름다운 노래마저 상실하며 정신적인 방황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인간관계의 단절과 더불어 짐마져 은행으로부터 퇴거 통보까지 받게 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봉착하는데 마음이 모두 닫혀버린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뿐 누구의 도움도 원치 않는다.

딸 브리는 전직 스피드 레이서인 이웃집 아저씨와 엄마 문제로 아픔을 공유하면서 신앙을 상실해 가는 엄마를 위해 열심히 기도도 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겨자씨를 키우면서 순수한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딸을 보살피려는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일터에서 해직도 당하는 등 엠버는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점차 스스로의 잘못을 자각해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유되어 가는 것이다.

이 영화는 또한 “상실의 아픔은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심경을 헤아려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그러하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확신케 되며 다음과 같은 엠버의 귀한 독백으로 이 영화를 통해 더욱 강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때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어긋난 길을 걸을 때 두려움이 우릴 방해하게 내버려 두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 주실 것이다.”



〈신은 죽지 않았다〉의 감독 해롤드 크론크가 2018년에 발표했으며 주연 린지 펄시퍼 외에 〈신을 믿습니까〉에도 릴리 역으로 나온 메켄지 모스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 브리를 훌륭하게 연기해 내었고 그들을 도우려 애쓰는 전직 레이스에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찾아온다면〉의 주연배우 앤드류 W. 워커가 열연했다. (상영 시간 111분)

## 김복동 구원

oil on canvas & wood



## 동행 ...

김용배 장로(강원기독문인회)

하룻밤 자고 나니  
 한 해가 가버렸습니다.  
 삼백예순날을 함께  
 먹고 마시고 뛰고 걷고  
 땀과 환호하던  
 한해가  
 내게서 젊음을 슬그머니 빼앗아  
 다시 오지 않을 뒤편길로  
 가버렸습니다.  
 아쉽고 서럽고 미련할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결코 백년 가약할 수 없는 새해가  
 내 팔을 잡아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 더 속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맘 편히 기대며 속삭이며  
 얼마 남지 않은 그 길의 동행에  
 나서야겠습니다.  
 아마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사랑과 소망과 행복한 날들이  
 봄의 새싹처럼 솟아오르고  
 저 멀리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조금씩 선명하게 들려오겠지요.  
 나는 이제 달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 BOOK

# 책속의 책

정숙현 전도사(안디옥교회)

## [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 ]

황희상·정설 지음 / 새움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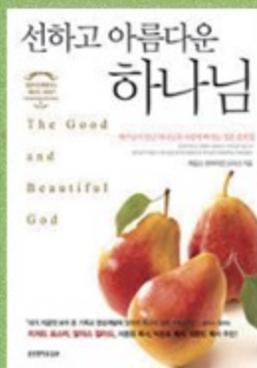


이탈리아, 체코와 독일, 프랑스와 스위스 그리고 영국.. 나라들의 이름만으로도 설레는 곳이다.

지속되는 코로나 시기.. 이젠 끝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무색하게 우린 두 해를 이 감염 병에 발목을 잡혀 살고 있다. 국내 여행도 쉽지 않은 이때, 감히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 내는 우릴 위해 귀한 책이 출간되었다. 틀에 박힌 여행사의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발품을 팔았던 내용, 정말 정성어린 이 책을 통해서 답답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추천해본다.

## [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지음 / 전병철 옮김  
생명의 말씀사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영혼의 성숙에 이를 수 있는데, 저자는 그것을 위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연습하라고 한다. 단원마다 소개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내 영혼을 채우고, '잠 잘 자기' 로 시작해서 '속도 늦추기' 로 끝을 맺는 영혼의 성숙을 위한 훈련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도, 개인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 噲

이시형 원장(이시형한의원)

춘천에 관한 옛 서적을 통해 한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 춘천 도호부에는 조선시대 나라에 바치는 공물이 “꿀·밀[黃蠟]·잣·오미자·오배자(五倍子)·철(鐵)·느타리·석이·여우가죽·삼괘이가죽·노루가죽·돼지가죽·잡·수달피·표범꼬리·돼지털·곰의 털”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잣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잣은 동의보감에 해송자(海松子)라고 하여 “성질은 조금 따뜻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관절통이나 저림, 어지럼증 등을 치료한다. 피부를 윤기 나게 하고 오장을 좋게 하며 허약하고 여위어 기운이 없는 것을 보한다. 오랫동안 먹으면 몸이 가뿐해지고 오래 살며 배고프지 않고 늙지 않는다. 죽을 쑤어 늘 먹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였습니다. 노인 변비는 장이 무력한 경우(기력저하 동반)와 장이 건조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비로 보고 변비약을 쓰면 지속된 설사로 체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노인 변비는 장을 촉촉히 적셔주는 약이나 체력을 올려주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약을 투여합니다.

이런 면에서 잣은 장내 건조를 막아주면서 기운을 올려주고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사용한 잣에 대한 처방 중 대표적인 것이 삼인죽입니다. 삼인죽(三仁粥)은 “늙은이나 허한 사람도 다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처방 구성은 도인(桃仁, 복숭아 열매의 씨), 잣, 옥리인(郁李仁, 이스라치씨, 산앵두의 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용 방법은 위 약들을 잘 짓찧어 걸러 즙을 짠 다음 여기에 멧쌀가루를 조금 넣고 죽을 쑤어 먹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복용방법이 복잡할 경우에는 수시로 잣을 드시는 것도 괜찮고 잣을 갈아 죽 쓸 때 넣어 드셔도 됩니다. 잣은 자양강장제로도 볼 수 있어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시사회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 가천홍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순화 고정희 광복연 광해옥 광 환 국주영 권경애 권양희 권여림 권영자 권용인 권려자 권려재
- 권현정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기자 김다정 김도희 김두철 김태순 김명선 김명희 김문수
-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향 김민섭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상화 김상수 김설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필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분 김옥선 김용배 김용선
-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정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은 김정희 김중복 김중숙 김중옥 김중익 김중찬 김중희 김주봉
- 김주혁 김주형 김지영 김준화 김태균 김학자 김향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욱 김혜란 김화분 나정희 남궁명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 노길자 노윤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원 민병순 민병일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난영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 박민규 박명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소원 박숙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영민 박영호
- 박옥화 박윤철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란 박종일 박주환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 현 박형덕 박혜성
-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명순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배한솔 백광일 백준학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일순 손학균 송갑수 송근영 송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종길 심규향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 양해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승흠 연정화 엄은희 엄정원 오성남 오성애 오소연 오재영 오홍금 오홍수
- 용애중 용영옥 우혜진 원병필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나에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관
- 유정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명숙 윤서경 윤성자 윤애자 윤은미 윤은진 윤정녀 윤정희 윤학병 윤홍목
- 이기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명숙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명운 이명준 이명철 이완재 이홍수
- 이상도 이상희 이상필 이상희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연희 이영순 이영순 이영순 이영순 이영준 이영준 이옥순 이완래 이홍수
- 이원일 이윤규 이윤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정미 이정옥 이종완 이종헌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 이춘선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한수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소희 임성용 임윤희
- 임인숙 임재철 임청용 장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준용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수진 전문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 정금옥 정명옥 정복례 정복희 정성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향
- 정지혜 정진호 정치용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문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영자 조원순 조은비 조성성
- 조정일 조종현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영필 지은용 지윤성 지정훈 차유진 차재욱 채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정 최미혜 최민기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연화 최영순
- 최영희 최옥삼 최옥순 최유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중대 최종인 탁광희 피종호 하원자 하윤옥 하은희 한명수
- 한성우 한순덕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현 함서현 허순영 허 업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기수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홍

후원교회

- 갑 리 교 회 강 번 제 일 교 회 강 원 침례 교 회 거 성 침례 교 회 그 말 씀 양 문 교 회 금 산 교 회
- 남 성 결 교 회 동 신 장 로 교 회 밝 은 빛 장 로 교 회 사 랑 의 교 회 수 암 성 결 교 회 새 춘 천 교 회
- 석 사 감 리 교 회 소 양 성 결 교 회 소 양 제 일 교 회 순 복 음 열 린 교 회 순 복 음 제 일 교 회 순 복 음 조 은 교 회
- 순 복 음 춘 천 교 회 신 북 교 회 신 성 감 리 교 회 아 미 교 회 임 마 누 열 교 회 엠 마 오 교 회
- 여 의 도 순 복 음 춘 천 교 회 예 사 랑 교 회 예 수 춘 교 회 옥 산 포 침례 교 회 은 누 리 교 회 우 두 감 리 교 회
- 주 의 숲 교 회 주 찬 양 교 회 주 향 장 로 교 회 축 복 교 회 춘 천 광 명 교 회 춘 천 광 열 교 회
- 춘 천 그 리 스 도 의 교 회 춘 천 명 성 교 회 춘 천 동 부 교 회 춘 천 예 달 교 회 춘 천 우 리 교 회 춘 천 은 명 교 회
- 춘 천 은 혜 교 회 춘 천 일 신 교 회 춘 천 중 앙 성 결 교 회 춘 천 제 일 교 회 춘 천 제 일 장 로 교 회 춘 천 침례 교 회
- 춘 천 평 화 교 회 하 늘 평 안 교 회 한 빛 교 회 한 울 성 김 교 회 협 동 교 회 하 락 교 회
- 후 명 제 일 교 회 춘 천 광 장 교 회 산 숲 교 회 산 천 무 지 개 교 회 제 자 감 리 교 회 하 늘 기쁨 교 회
- 성 광 교 회 섬 이 있 는 교 회 암 스트 룡 병 원 교 회 춘 천 효 자 감 리 교 회 효 신 교 회 초 대 교 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매일관광 베드로선교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춘천CBMC 춘천와이신협 철락의 기쁨 행복재가요양기관

▶명단(단체)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T.033)256-1260 H.010-9698-2993

창간 1998년 9월 15일 발행인 이사장 이수형 편집장 최상도, 이관형 편집위원 이연희, 이영규, 김춘배, 정숙현, 김진숙 편집·발행 춘천시사회운동본부 주소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금산리 1019 문의 (033) 256-1260 팩스 (033) 257-1260 메일 holycc1972@daum.net

\*본 매거진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 매거진에 실린 글, 사진, 그림 등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드림에드애 있으며 허락없이 본 매거진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나 복사는 불법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嘖⑥嚷嘍방땡 儻log 및 俛비党 摛佷嗒 喙搪

매 주일 **일요일** 쉽니다.

啁呻궂 『

월요일 ~ 토요일까지 11:00~21:30

휴게시간 없이 운영

전통 중국요리 전문점



자스민

예약문의

033.241.5453

춘천성시화운동 50주년 회년 대성회

# MOVEMENT

## 8.13-15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2022



Since 1972  
[www.holy1972.com](http://www.holy1972.com)